

사순 제4주일(2018년 3월 11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여러분들 건망증 때문에 가끔 곤란을 겪을 때가 있죠? 건망증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미국 성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늘 뭔가를 흘리고 잊어버리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골치가 아픕니다.

한번은 어떤 할머니가 미사 끝나고 나서,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던 자리 근처, 가방 속을 몇 번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 누가 주웠는지 성당 마이크로 방송도 했었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당에서 부터 자동차까지 되돌아 가면서 혹시 오는 길에 흘리지 않았나 하고 찾아 보았습니다. 그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글썄,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있는 겁니다. 들여다 보니까 자동차 키가 그냥 자동차에 꽂혀 있는 것이었어요. 차 시동도 끄지 않고, 차키는 그냥 차에 꽂아둔 채로 성당에 들어와서 그냥 미사 참석한 거죠.

어떤 분은 고백 성사를 보러 오셨는데, 무슨 죄를 고백 해야할지 다 잊어버리고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면, 성당 안에 분실물들이 여기 저기 가득 합니다. 장갑, 머플러, 선글라스, 돋보기, 등등. 어떤 분은 지팡이를 잊어버려서 찾기도 합니다.

가끔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외출하려고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글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아 온 집안을 헤매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쇼핑 몰에서 자동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까먹고 찾느라 며칠 걸렸답니다. 핸드백을 아무 생각없이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 두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답니다. 결국 포기하고 나중에 저녁 해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여니까 글썄 거기에 핸드백이 있었답니다.

뭘 가지러 아래 층에 내려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립니다. 외출 하려고 나왔는데, 어딜 가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렸답니다. 성당 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려고 나왔더라하고 한참 생각합니다.

건망증, 문제죠. 오늘 성당에 왜 오셨는지는 잊어버리지 않으셨지요? 성당에

오기는 했는데,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당에 미사 보러 왔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구원 받고 행복해 지려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구원도 받으시고 행복도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놓고 가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 말입니다.

사순시기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사순 4주일입니다. 사순시기는 절제와 단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은총의 시기, 사랑을 체험하는 시기, 그래서 행복한 시기입니다.

사순 첫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광야로 초대되었습니다. 사순시기를 광야의 시기라고 비유할 수 있죠. 그렇게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결핍과 부족함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인간은 나약한 자신을 체험하고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약한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댈수 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발버둥쳐 봤자 별 소용없고, 오직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으로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해야 인간은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결국 광야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담겨져 있죠. 하느님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잘 들여다 보시면, 우리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기 힘든 하느님도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이미 계시고,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는 참된 행복도, 참된 평화도 모두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야 깊이 들여다 보입니다. 풍량이 일고 바람이 불면 깊이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해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마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을, 내 마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평화를 영똥한

곳에 가서 찾으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헤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만 살아가니까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너무 급하게만 바쁘게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죠.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빨리 전화 안 받는다igo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합니다. 전자레인지 앞에서 언제 끝나나 돌아가는 접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기 다 익었는지 썰 새 없이 뒤집어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면 끓이면서 물이 끓기도 전에 수프부터 넣죠. 볼일 보면서 동시에 양치질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핸드폰 메시지로 새해 인사 보낼때, 집단 메시지로 여러 사람에게 한번에 똑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횡단 보도에서 신호 바뀌기 전에 이미 출발해 버리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판단해 버립니다. 늘 여유없이 아주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사는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하다 급해’를 외치면서 여유 없이 서둘러 살다 보면,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행복을 채 맞이 하기도 전에 그냥 그 앞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기도 전에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이지만, 잠시 여유를 가지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여유가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바로 사순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할 마음가짐입니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지요. 내가 과연 신앙의 여정을 잘가고 있는 건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 가고 있는 건지. 혹시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사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나서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제 사순시기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행복을 가득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동안 잘 준비하시고, 의미 있는 사순 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